

김정관 산업장관, '1일 행사 준비요원' 현장 점검

국내외 기업협력 통한 수출확대

2025 APEC 경주 경제인 행사

경제인 숙소 1박 체험하며 준비
행사 동선·편의까지 꼼꼼히 확인
글로벌 기업 협력으로 투자 촉진
K-기업 도약 발판 될 기회 강조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경제인 행사장 현장 점검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역대 최대 규모 행사인 만큼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 간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투자와 수출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각오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경주를 방문해 행사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이날 하루 '행사 준비요원'으로 나서 APEC CEO 서밋이 열릴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 화랑마을(CEO Summit 만찬), 화백컨벤션센터(정상회의) 등 주요 행사장을 돌며 조성·운영 계획, 참가자 동선, 수송·식사·안내 등 지원체계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경제인 숙소 중 하나인 강동리조트에 직접 숙박하며 참가자 편의성까지 체험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어 열린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민간추진위)'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성공적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 시각에서 제언된 의견을 청취하며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



최태원 SK회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다. 김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APEC 경제인 행사를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행사는 K-기업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의 플랫폼이자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과 협력해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 중이다. 즉 ▲CEO 서밋 및 부대행사(퓨처-테크 포럼, K-Tech 쇼케이스 등)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소통 확

대, 공동 프로젝트 발굴, 투자 촉진, 수출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APEC 정상회의 주간 동안 경주에서는 20여 개 세션이 진행되며,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인공지능(AI), 조선, 방산 등 전략 산업을 주제로 한 퓨처-테크 포럼, 로보틱스·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을 전시·홍보하는 K-Tech 쇼케이스도 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인 행사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성과창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송미령 "농촌관광, 지역경제 핵심 역할"

농식품부 장관, 오성한옥마을을 점검
추석연휴 농촌관광 홍보 캠페인

정부가 농촌관광상품 할인을 지원하는 등 을 추석연휴 기간에도 전국 각지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송미령 장관이 직접 사전점검에 나섰다. 그는 18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오성한옥마을을 둘러본 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 홍보 캠페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

원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촌관광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어 "추석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성한옥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조성된 곳이다. 송 장관은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다도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간담회를 통해 마을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 한옥 숙박시설(죽림원소담원 등)과 관광코스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 체험휴양마을을 시설·프로그램 운영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국민이 뽑은 2025 농촌여행지 '스타마을 20'의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하순 농촌 체험휴양마을을 대표하는 20개 마을이 선정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신복위, 전기요금 채무조정 본격 도입

서민금융법 개정 맞춰 제도 본격 추진

한국전력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손잡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한전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함께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 시행(9월19일)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 채무와 통합해 조정하는 제도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양 기관은 법 개정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디지털 기반 채무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청부터 심사, 동의, 확정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

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다음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 등이 가능해져 신청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된다. 제한·단전됐던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백우기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21세기말 평균기온 최대 7도 상승

환경부·기상청,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1세기 말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최대 섭씨 7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폭염 일수는 현재 연평균 8.8일인데 최장 79.5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기후위기 연구 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한 자료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재작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 13.7℃로 역대 1·2위를 기록했다.

최근 7년간(2018~2024년) 온난화 추세가 강해진 점도 확인됐다. 1912~2017

년의 기온 상승률은 10년마다 0.18℃였으나 1912~2024년에는 0.2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평균 폭염일수는 15.6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폭염일수와 연평균 기온에 관한 전망도 제시했다.

21세기 말(2081~2100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라 최소 2.3℃에서 최대 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2.3도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률을 2도 이내로 억제했을 때를 가정한 '낮은 단계 기후변화 시나리오(SSP1-2.6)'에 해당하는 전망이다. 또 7도는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계속 많이 배출되는 경우를 전제한 '매우 높은 단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SSP5-8.5)'에서의 예상 결과다.

/김연세 기자 kys@

농협, 청년여성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

추석 선물용 과일 등 농산물 선배

농협중앙회가 청년여성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직거래장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시작된 행사는 20일까지 서울 도봉구 농협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소속 회원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추석 선물용 과일, 쌀 가공식품 등 다양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도심 소비자와의 만남을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농협은 청년여성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을 넘어 유통·판매까지 주체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채널을 연계하고 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년여성농업인의 정성과 품질이 담긴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실질적인 판촉의 장이 될 것으로 농협은 기대했다.

행사장을 찾은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김일한 부장은 "청년여성농업인은 농촌의 미래이자 변화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청년여성농업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이철원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과 전청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전사 감사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서발전

동서발전, 인공지능감사·윤리현장 공식 제정

"공공부문 윤리적 인공지능 활용 선도"

한국동서발전이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공공부문 윤리적 인공지능 활용을 선도한다. 동서발전은 지난 16일 울산 본사에서 '2025 인공지능 감사·윤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감사윤리 현장'을 수립·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세미나에서 인공지능 윤리분야 전문가인 전청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이 '인공지능 감사윤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이 가져올 혁신

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하며 인공지능 기술과 기업 가치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행사에서 동서발전 열린감사실은 '인공지능 감사·윤리 현장'을 공공기관 최초로 공식 선포하며 회사의 인공지능 윤리성을 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인공지능 감사·윤리현장은 △인간중심 인공지능 활용 ▲공정성 확보와 차별방지 ▲정보보호 및 데이터 윤리 준수 ▲명확한 책임성 확립 ▲사회적 공공성 실현 등 인공지능 활용 시 준수해야 할 10대 감사·윤리 원칙이 담겼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